

‘분위기 반전 절실’ 광주FC, 김천과 첫 격돌

내일 원정 K리그 6라운드

최근 3연패 탈출 반드시 승리
빅톤·가브리엘 공격력 주목
김경민 퇴장 공백은 새 과제
전남, 7일 부산에 4연승 도전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항상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이정호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후 처음 3연패에 빠진 광주FC는 김천상무FC와 첫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로 분위기를 반전해야 한다.

광주는 오는 6일 오후 4시30분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홈 2연전에 이어 다시 3일 간격의 원정길에 오르는 이정호 감독이다.

광주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지난 라운드 인천과 홈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제르소에게 극장골을 허용하며 2-3으로 패했다. 앞서 대구에 1-2, 포항에 0-1 패배를 당했던 광주는 세 경기 연속으로 한 곳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3연패 수렁에 빠졌다. 순위 역시 7위로 떨어진 상황이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광주는 김천과 첫 맞대결을 치른다. 2021년부터 상무의 구단 운영 주체가 상주에서 김천으로 바뀐



광주FC가 6일 오후 4시30분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상무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FC 김경민(왼쪽)이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 핸드볼 반칙으로 퇴장을 당한 뒤 이승운에게 유니폼을 입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뒤 양 팀은 1부리그와 2부리그를 오가며 서로 엇갈린 운명을 맞이했다. 광주는 2021년 K리그1, 2022년 K리그2, 2023년 K리그1에 속했고 김천은 2021년 K리그2, 2022년 K리그1, 2023년 K리그2에 속했다.

맞대결 경험이 없는 만큼 양 팀은 백지 상태에서 경기에 나선다. 앞선 다섯 경기

에 대해 서로 분석을 하겠지만 상대 전적에서 비롯되는 자신감이나 징크스 같은 요소는 전혀 없다.

광주는 김천의 전신인 상주와는 10승 1무 11패로 근소한 열세에 있었다. 하지만 K리그1에서는 8승 1무 7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했고, 리그컵 역시 1승으로 우위였다. K리그2에서만 1승 4패로 고전했

다. 첫 맞대결을 준비한 광주는 3연패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다. 이정호 감독은 인천을 상대로 빅톤과 가브리엘을 동시에 기용하며 새로운 공격 루트를 찾아냈다. 195cm의 큰 신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헤더의 빅톤과 폭발적인 돌파력과 파괴력 있는 슈팅을 갖춘 가브리엘이 함께 필드를 누비며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하는 모습이었다.

가브리엘이 자칫 길어질 뻔한 무득점의 터널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큰 의미다. 가브리엘은 한국 무대 데뷔와 함께 서울전에서 쉐기골, 강원전에서 동점골과 결승골을 터트리며 존재감을 알렸지만 포항전과 대구전에서는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주춤했다.

하지만 인천전에서는 0-2로 뒤진 후반 18분 교체 투입된 후 3분 만에 공격 진영에서 타이탄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의 패스 전개를 끊어낸 뒤 침착한 마무리로 추격골을 만들어냈다.

김경민 골키퍼의 퇴장 공백은 유일한 변수다. 사실상 유일하게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고 1년을 풀타임으로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 골키퍼인데 김경민이 지난 인천전 후반 추가시간에 퇴장을 당했다.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벌어진 경합 상황에 고의적으로 손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경민의 공백 속 새로 골문을 지킬 후보는 이준과 노희동, 김태준이다. 세 명 모두 올 시즌 출장 경험은 없지만 이준은

네 차례, 노희동은 지난 인천전에서 한 차례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

이준은 지난해 리그 13경기에서 13실점(경기당 평균 1.00실점)을 기록했다. 작은 실수로 실점 위기를 허용하는 등 성장통을 겪기도 했지만 세 차례 클린시트를 챙기며 김경민이 부상과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골문을 준수하게 지켰다.

노희동은 1부리그에서는 아직 출장 기록이 없지만 착실히 출전 준비를 해왔다. 22세 이하 선발 카드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큰 신장을 바탕으로 한 공중볼 처리와 빠른 반사 신경을 이용한 일대일 선방이 장점이다. 지난해 FA컵(현 코리아컵)에 출장해 경험을 쌓았고 2022년 K리그2 데뷔전에서는 무실점으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김천은 김현욱과 이준민 등 최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공격 자원들을 앞세울 전망이다. 정정용 감독은 공수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매 경기 유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도도 무력화해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것이 현재 광주의 상황이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오는 7일 오후 2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하나은행 K리그2 2024 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최근 김포FC를 시작으로 강릉시민축구단, 천안시티FC를 연파하며 코리아컵 포함 무실점 3연승을 달리고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 이번 주에도 ‘찐팬 릴레이 시구’ 이어간다

6일 배혜지 기상캐스터 등판

KIA타이거즈가 6~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홈경기 승리 기원 시구에 ‘찐팬’ 들을 초청해 마운드에 올린다. 지난달 26일 그룹 CIX 리더 BX(본명 이병곤), 27일 이정화·최지안 모자에 이어지는 릴레이 시구다.

6일 경기에는 배혜지 KBS 기상캐스터가 시구자로 나선다. 광주 출신인 배 기상캐스터는 여러 차례 유튜브 출연에서 팬심을 드러낸 찐팬으로 TV조선 예능 내일은 미스트롯2에 출연한 바 있다.

또한 현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12·13대 인터뷰어를 맡는 동시에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에

서 FC 아나콘다 소속으로 출연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배 기상캐스터는 구단을 통해 “어릴 때 가족들과 무등야구장에서 KIA타이거즈 경기를 보며 응원했는데 고향인 광주에서 시구를 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소원을 이룬 기분이라 정말 기쁘다. 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응원해 열두 번째 우승을 위한 승리의 기운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7일 경기에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개장 경기가 열린 2014년 4월1일 태어난 정운지양과 조이찬군이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키움히어로즈와 개막 시리즈 2차전에 시구와 시타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경기가 우천 취소돼 다시 경기장에 방문하게 됐다.

한규빈 기자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거점형 지원사업 공모 선정

6년 연속... 국비 7000만원 확보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2024년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거점형) 지원사업’ 공모에서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이 선정돼 국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은 2022년 8월 북구반다비체육센터 개관에 맞춰 기존 배드민턴, 탁구, 파크골프 이외에 수영 종목도 신설해 연평별·수준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현재까지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연간 클럽 가족캠프, 전문체육선수 재능기부 행사, 기관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참여자들 간 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19년 전국 최초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거점형 공모 선정 이후 6년 연속 공모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 1억8550만원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 70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용품지원사업 3000만원 등 국비 총 2억8550만원 확보를 통해 ‘모두가, 누구나, 부담없이 누릴 수 있는’ 장애인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동환 기자

광주 근대5종 신명오·조하은, 2024亞선수권서 메달 사냥 도전

10~15일 경기 화성서 개최 14개국 200명 우승 향한 각축

광주 근대5종의 신명오(광주체고 3)와 조하은(송학건설)이 1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근대5종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메달 획득을 노린다.

4일 대한근대5종연맹에 따르면 ‘2024 근대5종 아시아선수권대회’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경기 화성시 일원에서 열린다.

아시아근대5종연맹과 대한근대5종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시니어 남자·여자부, U19(19세 이하) 남자·여자부, 혼성계주(시니어 및 U19)로 나뉘어 경기가 치러진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카자흐스탄 등 총 14개국에서 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우승을 향한 각축을 벌인다.

광주 근대5종 선수로는 신명오와 조하은이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U19 부문에 출전하는 신명오는 지난 3월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41회 회장배 전국근대5종대회 남고부 4종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고등부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신명오는 “이번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친구, 후배들과 같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어 설렌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광주체고 신명오



송학건설 조하은 광주근대5종연맹 제공

시니어 여자부에 참가하는 조하은은 제41회 회장배 전국근대5종대회 여일부 5종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자신감이 향상됐다.

조하은은 “이번 아시아선수권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며 “지난해 9월 리투아니아 U21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장애물경기를 치른 경험이 있어 자신감 갖고 경기에 나서겠다”고 출전 소감을 말했다.

한국에서는 시니어 부문에 대한민국 최초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정진화(LH)와 ‘근대5종 천재’ 신수민(서울체고), 제41회 회장배 전국근대5종대회 고등부 3관왕 김유리(경기체고), 제41회 회장배 전국근대5종대회 일반부 2관왕 박가연

(BNK저축은행) 등도 출전한다.

U19 부문에는 2022년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관왕에 올라 여자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김예림(경기체고)이 우승에 도전한다.

2024 근대5종 아시아선수권대회는 2009년 서울 대회 이후 15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며, 기존 승마 대신 장애물 경기가 치러지는 첫 번째 아시아선수권대회다. 근대5종은 수영, 펜싱, 레이저런, 승마 종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향후 승마가 장애물 종목으로 바뀐다.

올해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선 기존 승마를 포함한 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이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는 승마가 장애물 경기로 대체된다.

최동환 기자